****

**선교 활동 보고**

**펜실베니아 교회, 지역사회에 '새로운 시작'을 선사하다**

동네 빨래방은 린다의 예배당이었다.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가족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기도 제목을 처음으로 나누었다. 바로 돈 문제였다.

당시 린다는 4기 암환자였다.

린다와 딸의 곁에 모인펜실베이니아 [웨인즈버러 장로교회](https://www.facebook.com/profile.php?id=100064549245608)의 목사와 자원봉사자들에게 "내가 아프고 나서 빨아야 하는 이불의 양이 많아져서 집에서 빨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"라고 말했다.

세탁 비용 때문에 린다의 가족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더 깊은 빈곤에 빠져들고 있었다. 그리하여 교회의 "새 출발: 사랑의 빨래" 세탁 봉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, [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 헌금](https://specialofferings.pcusa.org/offering/peace-global-witness/) 중 [칼라일 노회](https://carlislepby.org/)에 돌아온 금액으로 일부 기금을 마련했다. 이렇듯, 노회에 돌아오는 특별 헌금의 일정 부분은 교회와 개인이 지역사회와 세계에서 평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.

전통적으로 세계 성만찬의 날에 걷는 [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헌금](https://specialofferings.pcusa.org/offering/peace-global-witness/)은 금액의 절반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 차원의 평화 증진과 세계 선교 노력에 쓰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. 25%는 평화와 화해 활동을 위해 우리와 같은 교회에서 보유하고, 25%는 지역 차원의 유사한 사역을 위해 중간 공의회로 보내진다. (여러분 교회에 할당된 금액이 교회에서 하는 평화 증진 사역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이야기하십시오.)

미국장로교 특별 헌금 및 모금 담당 부국장 윌슨 케네디 목사는 "웨인즈보로 교회의 세탁 봉사 프로그램은 평화를 증진하고자 하는 미국장로교의 오랜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"라고 말했다. "지역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빨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 단순한 일이라도, 예수님의 명령처럼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."

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"새로운 시작"의 사명에 필수적인 요소이다.

캐롤라인 비커리 목사는 "예수님은 우리가 취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대부분의 교인은 대학 교육을 받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중산층입니다. 세탁 봉사 활동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세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, 세제, 청소용품 또는 개인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데 SNAP 혜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.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존엄성은 사라질 것입니다. 사람들이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면, 회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"새로운 시작"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"라고 말했다.

"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, 지역사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"라고 비커리는 말했다. 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 헌금에 기부함으로써,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

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드리면, 많은 것이 됩니다. 관대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십시오.

***기도합시다.***

*평화의 하나님,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단순한 사랑과 배려의 행위라도, 당신은 평화라고 해주십니다. 예수님의 인격으로 평화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가진 은사를 통해 세상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할 때에 저희와 함께해주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***아멘**.